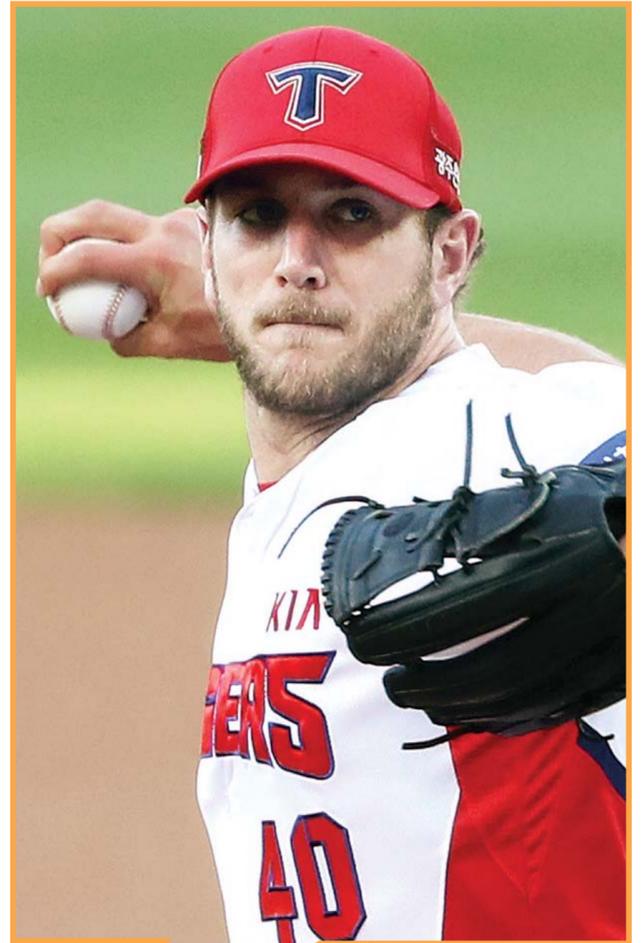


뇌집 복덩이가 잘하나... 외국인들 창-방패 대결



브룩스 vs 라모스 vs 가봉

KIA, 오늘부터 홈에서 LG와 3연전...새 외국인 선수 활약 주목
KIA 브룩스,ML 화려한 이력...가봉, 경기당 평균 타삼진 7.8개
LG타자 라모스, KT전 끝내기 만루포 등 뜨거운 방망이 화제
팀 방어율 3위 KIA vs 1위 LG 젊은 불펜 대결도 흥미진진

주말 챔피언스필드에서 눈길 끄는 외국인 선수들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는 문학, 수원으로 이어지는 원정 6연전을 마치고, 29일부터 LG 트윈스와 안방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두 팀의 2020시즌 첫 대결 관전 포인트는 '신입 외국인 선수'다. 올 시즌 프레스턴 터커와 재계약을 한 KIA는 애런 브룩스와 드류 가봉으로 외국인 원투펀치를 새로 꾸렸다. LG는 지난해에 이어 타일러 윌슨, 케이시 켈

리 두 외국인 투수로 마운드를 구성했다. 대신 타선을 멕시코 출신의 로베르토 라모스로 채웠다. 새로 팀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은 시즌 초반 야구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브룩스는 직전 시즌 가장 화려한 이력으로 먼저 주목을 받았다.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활동한 그는 지난해에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으로 빅리그 풀타임 활약을 했다. 브룩스는 2019시즌 선발과 중간계투로 18경기에 나와 6승 8패 평균자책점 5.65를 기록

했다. 팔꿈치 부상 여파로 초반 페이스가 좋지 못했던 가봉은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를 하면서 외국인 투수 경쟁에 새로 뛰어 들었다. 가봉은 최근 두 경기에서 13이닝을 5피안타 4사사구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깔끔한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두 경기에서 17개의 타삼진을 뽑아내는 위력을 발휘했다. 빅리그 경험은 없지만 라모스는 뜨거운 방망이로 연일 KBO리그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KT위즈와의 홈경기에서 9회말 끝내기 만루포를 터트리며 눈길을 끈 라모스는 연달아 담장을 넘기며 홈런 단독 1위(27일 현재 9개)를 달리고 있다. 득점권 타율도 0.412에 이르는 등 외국인 타자 복이 없던 LG의 '복덩이'로 떠올랐다. 눈길 끄는 새 외국인 선수들의 투-타 대결이 예고되면서 챔피언스필드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화려한 이력'의 브룩스와 '최고의 활약' 라모스의 맞대결은 29일 펼쳐진다. 31일에는 가봉이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올라 라모스와의 힘겨루기에 나서게 된다. 두 팀의 '젊은 불펜' 대결도 흥미롭다. LG는 올 시즌 3.39로 가장 낮은 불펜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마무리 고우석이 왼쪽 무릎 부상으로 빠졌지만 진홍고 출신의 고졸 루키 김윤식(20)과 정우영(21), 이상규(24) 등 영건들이 불펜에서 힘을 보여주고 있다. 4.43의 불펜 평균자책점으로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KIA에는 과감함으로 승부하는 '박진문'이 있다. 박준표(28)-전상현(24)-문경찬(28)으로 이어지는 KIA의 필승조는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는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강팀을 만나게 된 KIA가 주말 안방에서 어떤 성적표를 작성할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습지 보전 중요성 홍보
오늘 LG전 '람사르 유니폼'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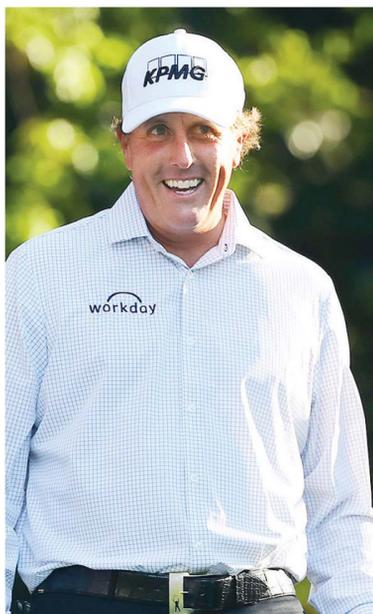
KIA 타이거즈가 29일 '람사르 데이'를 열고 특별 유니폼을 입는다. KIA는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LG전에서 '람사르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IA 구단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함께 습지 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과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수단은 청록색으로 특별 제작한 '람사르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선수단은 또 청록색 'T' 로고가 수놓아진 모자를 쓴다. 한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2008년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를 계기로 설립된 전 세계 4개의 람사르지역센터 중 한 곳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 위치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미켈슨 "우즈, 맞대결 매년 하자"

골프 이벤트 시청률·코로나 성금 흥행에 경기 개최 제안

필 미켈슨(50)이 타이거 우즈(45·이상 미국)와 함께한 골프 이벤트 대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미켈슨은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스테픈 커리와 마이클 조던, 토니 로모와 패트릭 머흐스와 같은 선수들은 골프에도 재능이 있고 확실한 개성도 있다"며 "래리 데이비드나 빌 머리와 같은 배우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켈슨은 지난 25일 우즈와 함께 '더 매치: 챔피언스 포 재리티' 행사에 참여했다. 미국프로농구(NFL) 스타 페이턴 매닝, 톰 브래디와 함께 '2대2 대결'을 벌였는데 이 행사는 미국 내 평균 시청자 수 580만명으로 미국 케이블 TV 골프 중계 사상 최다 시청자 수 기록을 세웠다. 또 코로나19 돕기 기금도 2000만달러(약 247억원)를 모으는 등 '흥행 대박'을 쳤다. 이번 우즈와 미켈슨의 맞대결은 2018년 11월

에 '일대일 대결' 형식으로 열린 '1탄'에 이은 두 번째 경기였다. 첫 대결에서는 미켈슨이 승리해 상금 900만달러를 독식했고, 이번 경기는 우즈와 매닝 조가 1홀 차 승리를 따냈다. 이에 미켈슨이 아예 정례 행사로 열어보자는 제안을 인터뷰를 통해 한 것이다. 미켈슨은 "첫 대결에서 부족했던 점을 두 번째 경기에서 보완했다. 파트너를 한 명씩 추가하면서 재미있는 요소가 늘었고, 카트에 카메라를 설치한 점도 좋았다"며 자평한 뒤 "앞으로 더 대화를 재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켈슨은 우즈와 한 편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와 우즈가 한 편을 이뤄 두 명의 젊은 선수를 상대할 수도 있다"며 "저스틴 토머스나 같은 선수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기를 원하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켈슨

ML 선수들 '연봉이 기가 막혀'

선수노조, 사무국 삭감안 대책 수립 부심...공식 입장 미뤄

미국프로야구(MLB) 구단들의 습격에 크게 한 방을 얻어맞은 선수들이 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AP통신은 MLB 구단의 연봉 차등 삭감 제안을 받은 선수노조가 수용 또는 거부로 의사를 정리하고 다른 제안을 제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28일 전했다. MLB 각 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중 없이 정규리그를 개막하면 수입이 많이 감소한다며 고액 선수 연봉은 많이 깎고, 저액 선수들은 덜 삭감하는 연봉 차등 삭감안을 27일 선수노조에 건넸다. 이 안에 따르면, 연봉 3600만달러(약 446억원)를 받는 특급 스타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게이브 롤(뉴욕 양키스)은 무려 77%나 삭감된 약 800만달러만 손에 쥘다. 2000만달러를 받기로 한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도 4분의 3을 날리고 515만달러만 가져간다.

정규리그 시작 후 구단 수입의 절반을 받기로 한 기존 구단안보다 진일보한 제안을 기대했던 선수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충격을 표출했다. 토니 클라크 선수노조 사무총장은 연봉 차등 삭감안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선수들은 28일 화상회의에서 구단안에 분노를 표하고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을 받기로 한 선수노조의 기존 주장을 관철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팀당 82경기 진행보다 더 많은 경기를 치르는 것을 상의했다고 AP통신은 소개했다. 연봉 차등 삭감안을 수용할 수 없고, 연봉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7월 초 정규리그 개막을 위해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연봉 지급안과 코로나19 검사를 아우른 안전 대책을 6월 초까지 합의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면 각 구단은 최소 21일간 팀 훈련과 최대 3번의 시범경기를 거쳐 정규리그를 시작한다. /연합뉴스